

'어화등등' 찾아가는 국악교실

지난 10월 14일(월)에 다목적실에서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어화등등'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진행하였다. 포천 시립국악단 소속의 강사 6명을 초대하여 국악과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국악곡을 영상자료가 아닌 현장의 연주를 통해 직접 감상하면서 우리 악기의 생생한 소리와 가락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연주자와 학생들이 메기고 받기를 통해서 호흡을 맞춰 노래하며 국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악 공연이 끝난 후, 강사들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신나게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포천향교 인성교육

지난 18일(금) 3-1 학생들이 포천향교에 가서 인성교육을 받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전통의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입어보기도 했다. 상 앞에 앉아서 사자소학을 공부하고, 포천의 역사도 배웠다. 그리고 조선시대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쉬는 시간에는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 되어 찾아가는 통일교육자료 전시회

지난 18일(금)부터 25일(금)까지 신관 2층 과학실 앞 복도에서 하나 되어 찾아가는 통일전시회가 열렸다. 통일교육개발원에서 전시품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1일(월)에는 북한에서 온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해주었다. 일주일동안 학생들은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품을 관람하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아람단 청소년 종합 예술제

10월 19일(토)에 아람단 단원들이 청소년 종합 예술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를 다녀왔다. 단원들은 '행복한 오늘'을 주제로 행복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예술제 작품으로 공모하였다. 친구들이 즐겁게 뛰는 장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 친구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하며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촬영 시간이 끝난 뒤 단원들은 자유롭게 에버랜드를 돌아다니며 놀이기구를 타거나 동물들을 관람하였다. 맑은 가을 공기를 만끽하며 사진전의 주제였던 '행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었다.